

💖 100일 잔치 소감문 💖

- 매산가족모임 해양 김여사 -

안녕하세요~ 해양 배선생 엄마 해양김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써 봤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배선생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3월 초 코로나 때였습니다. 배선생 아빠가 저를 퇴근시키러 와서
한숨을 내리쉬며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마음에 왜 그러냐고
여러 번 되물었는데 배선생 어떡하냐며 도박에 손을 대 빛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
다. 저는 그 소릴 듣는 순간 몸이 떨리면서 오그라들어 퍼지질 않고 저절로 구부러
지면서 소리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
는데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길로 저녁도 굶은 채 우리는 배선생이 있는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이 왜 그리 멀고 긴지 가는 동안 내내 몸이 벌벌 떨리면서
퍼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착한 아들이었기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는 작은 월급인데도 적금 들어 제대할 때 돈을 모아 가지고 나온 배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도박을 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안에 도착
해 주차장에서 배선생을 보게 됐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랐는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 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낮설고 내 자식이 무섭게 느껴졌는지... 다가가면서 이름을 불러도 배선생은 쳐다보
질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그
모습은 죽는 날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배선생은 빛이 1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인, 회사 직원, 은행 대출, 쪽 적어 놓은 걸 보니 참 많이도 빌렸더군요.
남편과 저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빛을 갚아주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배선생은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또 터트렸습니다.

배선생 아빠는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다가 숨이 안 쉬어진다면 뛰쳐나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바람을 쐬기도 했고, 갑자기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가며 또다시 대리 변제를 해 주었습니다. 배선생과 우리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기로 또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배선생은 병원을 다니며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박은 몇 개월 지나 계속 되었습니다. 이젠 사채까지 썼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돈이 돈으로 안 보이고 게임머니로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 중독도 보통 중독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삼세번이라며 우리는 도박빚을 다시 갚아주며 한번 더하면 다시는 안 본다.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엄포도 쳤지만 배선생은 또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배선생을 정말 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식이기에 버리질 못하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내 자식이 도박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끊을 수 있는데 왜 끊질 못하냐며 다그쳤습니다. 화를 내고 다독여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 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선생 아빠와 저는 배선생 앞에서 눈물도 많이 보였습니다. 배선생은 감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 또다시 도박을 할까 두려운 상황 속에서 휴대폰에 나이스지킴이를 해 두었는데 신용 조회라는 메시지만 떠도 불안증과 공포에 시달리며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배선생은 도박을 할 때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카톡을 보내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피 말려 죽이려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선생의 앞날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미래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남들은 행복하게 잘들 사는데 우리는 언제 웃고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걱정이 없어 보여 부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트린 게 23년 12월 초였는데 우리가 천안에 내려가질 않으면 빛은 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커질게 뻔해 퇴근하면서 우리는 바로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문을 두드리고 소릴 질러도 배선생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몸은 벌벌 떨렸습니다. 결국 열쇠공을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꺼놓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배선생은 죽은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이불을 천천히 벗기니 다시 뒤집어썼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

워서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살아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배선생은 광고에 나오는 도박중독자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불을 켜고 방을 보니 배달시켜 먹은 음식들이 언제부터 시킨 것인지 온방을 빈틈 없이 메꾸고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도박에 미쳐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도박 빚은 갚아주면 안 된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머리와 행동은 달랐습니다. 우린 또다시 도박빚 갚아 주는 걸 되풀이하면서 배선생과 우리는 수렁 속에 한없이 빨려 들어가고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단도박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도박 앞에 무력하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을 아들의 도박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도박중독자를 아들로 둔 저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유튜브에 도박중독자의 경험을 들으며 인정하기 싫지만 배선생이 도박중독자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선생이 GA모임에 다니면서 가족모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배선생을 따라 가족모임에 가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오면서 배선생을 도박중독자로 만든 건 저와 남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도박은 남편과 둘만의 대화였고 어딜 가든 숨겨야 했던 일들을 모임에 와서 털어놓으니 답답했던 속이 뚫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배선생의 얼굴과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배선생이 그동안 엄마, 아빠의 공격을 수없이 받으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하루하루에 살자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희망이란 없어 보였는데 어느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나온 지 4개월 지나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했던 제 마음은 평온함을 느끼면서, 위대한 힘에서 나온 것인지 모임에 왔다 가는 길은 이상하리 만큼 참으로 편안합니다.

앞으로도 배선생은 단도박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GA모임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오늘은 100일 잔치를 했지만 재

발 없이 모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1년 잔치 소감문을 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GA모임은 병원이고 학교라는 여사님의 말을 잊지 않고 저 역시 가족모임은 저와 우리 가족의 살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참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잔치를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